

범불교적 참회로 참된 개혁을

혜봉스님 '3·1절' 83돌 특별기고

3·1절을 하루 앞둔 2월 28일,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회장 김희선)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제강점기 친일 반민족 행위자 708명의 명단과 구체적인 친일 행적을 공개했다. 광복 이후 57년 만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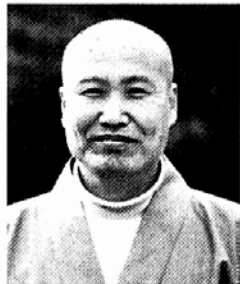
이날 발표된 708명의 명단 중 692명은 '광복회'에서 국회에 청원 형태로 제출한 인물들이고, 추가된 16명은 의원모임에서 심의를 하고 최종 발표 명단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추가된 집중 심의 대상에 포함된 불교계 인사로는 권상로(1879~1965)가 들어 있고, 이미 선정된 692명 중 불교계 인사는 이희광(1862~1933)·이종욱(1884~1969)·김태홍(대운, 1899~1989)·허영호(1900~1950년 남북) 등 네 명이다.

그럼 여기서 이들 5명의 친일 행적을 살펴보자. 집중 심의 대상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게 된 권상로는 일제 하 최고의 학승이었고 동국대학교

종합대학이 되면서 초대 총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는 1937년 8월 6일 조선불교 중앙교무원에서 주최한 강연회에서 '선각자로서'라는 제목으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할 것을 역설했고, '승려 지원병에 대하여'라는 글(불교시보 제57호, 1940. 4. 1)을 통

해 승려들의 지원병을 권유하기도 했다. 특히 '불상의 장행'(신불교 제 48집, 1943. 5)이라는 글에서는 '전승을 위하여 교주의 성상(聖像)까지 내어 바치는 것은 불교가 아니면 없을 일'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법해가 편찬한 <동사열전>에 기록된 조선왕조 마지막 대강백이었던 이희광 스님 또한 그 명성을 지키지



하는 일에 참여하기도 했으나 훗날 31분산 주지회의의 의장이 되는 등 끝수 친일파로 전락하였다.

일제강점기의 대표적 엘리트 승려였던 김태홍(대운, 일본유학 중 맞은 관동대지진 때의 경험으로 한때 반일 성향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1935년 8월 '불교시보'를 창간하면서부터 노골적으로 일본을 찬양하는 친일파로 전락해 갔다.

발표 친일명단에 불교계 5명 포함 협력사례 공개 역사 엄정 평가해야

못하고 불교계의 이완용이라는 오명을 남기고 말았다. 한일합방조약의 먹물이 채 마르기도 전인 1910년 10월 6일 조선의 원종(圓宗)과 일본 조동종과의 연합을 획책함으로써 중단을 팔고 조상을 바꾸어 버린 것이다.

건국국민훈장을 추서(1977년) 받기도 한 이종욱, 1919년의 3·1 단세 운동에 참가한 뒤 매국 역적을 제거

3·1운동에 참가하여 징역형을 받기도 한 허영호도 '신불교'지의 편집 겸 발행인이 되면서부터 '황실의 번영을 축합'이라는 등의 친일 시사문을 발표했고 1941년 새로 출범한 조선불교 조계종의 중징 사서가 됨으로써 본격적인 친일파로 전락했다.

이상과 같이 708명의 명단에 포함된 5명 이외에 박윤진(대우)을 거른



중랑서 경승실 월드컵성공기원법회

서울 중랑경찰서 경승실(실장 법만)과 불경협의회는 2002 한일월드컵을 100일 앞두고 2월 25일 중랑경찰서 대강당에서 월드컵 성공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중랑구 사암연합회와 중랑경찰서 전의경 어머니회, 중랑경찰서 법우회가 후원한 이번 법회에는 불교방송 이사장 도후스님, 도봉경찰서 경승실장 자우스님과 경찰불자 및 가족 등 5백여명이 동참했다.



부산불교신도회 회장 이·취임식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는 2월 25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제24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성오스님을 비롯 1백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01년 결산 심의와 2002년 예산 심의에 이어 류진수 회장이 신임회장으로 추대됐다.

스님들, 음주운전 근절 홍보

부산 연산경찰서 경승 원광스님 등



◇부산 연산경찰서 경승 원광스님(오른쪽) 등 스님들이 경찰들과 함께 음주운전 근절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음주운전의 유혹이 급증하는 봄나들이철, 스님들이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음주운전 근절 시민홍보에 나섰다.

22일 밤 10시부터 12시 사이 교통량이 많은 연산로타리에서 실시된 음주단속에서 스님들은 승복을 입고 합장하며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 없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와 계몽 활동을 벌였다. 2002년 월드컵과 부산아시아게임 개최도시에 걸맞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부산 연산경찰서가 실시한 음주단속에 연산경찰서 경승인 정수사 주지 원광스님 황정사 주지 황정스님을 비롯 지역의 의사, 변호사, 학생들이 참석한 것. 원광스님은 "나는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교통문화 정착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천미희 기자

2002 한일 평화 도보 대장정 단장 원공스님

2002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환경보호를 위한 '2002 한일 평화 도보 대장정'이 28일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오전 9시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출발식을 가진 원공스님(현축사), 화가 강찬모씨 등 10명의 순례단은 총 4천km에 달하는 한국과 일본의 월드컵 경기장 20곳을 6월30일까지 1백23일간 하루에 40km씩 걷게 된다.

사진=고영배 기자



◇한일 월드컵경기장 도보순례에 나선 원공스님.



◇2월 27일 상량식을 가진 조계종 인천 전법도량은 대지 213평,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내년 6월 개관된다.

인천불교회관 상량

인천불교회관 상량식이 2월 27일 인천 남동구 갈월동 현지에서 열렸다. 인천 전법도량 건립추진위원회(집행위원장 임지, 마하연포교원 주지) 주최로 열린 상량식에는 인천불교회

관 주지 일연, 인천사암연합회장 지철, 보각사 주지 송산, 총무원 총무국장 덕신 스님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인천지역 80만 불자들의 숙원 불사의 원만 성취를 기원했다.

032523-9910-1

인천=권영진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밤슨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들,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bokbat@kornet.net

목탁소리 '세계여성의 날'과 불자

여수령 (취재2부 기자)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노동자들의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시위를 기념하여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87년부터 매년 '한국여성대회'를 열어 여성문제를 공론화시키는 마당으로 활용해 왔다. 올해도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거리 퍼레이드와 여성노동자 시장식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여성노동계는 전국 9개 대도시에서 여성노동자대회를 연다.

이 같은 여성단체들의 활발한 움직임과는 달리 불교여성개발원이나 한국여성불교연합회 등 불교여성단체들이 이번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준비한 행사는 없다. '기독교민회'와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등 다른 종교 여성단체들이 수년전부터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 여성의 날 행사를 전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

적이다. 불교계 여성단체들의 창립 취지인 '불자 여성의 권익을 도모'하고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성들의 노력에 동참한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하지만 조계사청년회가 마련한 '엄마 법우를 위한 특별 법회'는 특별한 주목을 받을 만하다. 행사 자체는 일회성이지만 그동안 여성 불자들에게 짚을 찾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보다 더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는 없을 것 같다. 사실상 일상적이어서 할 일이 '특별'이라는 수식어까지 달고 있는 것이다.

이 행사의 본 뜻이 남성들의 선심이나 생색내기 혹은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표현하는 데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행사의 의미가 시사하는 바는 아주 간단하다. 짚에 가는 일이 여성들에게 '특별'한 일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것이 앞으로 불교계 여성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가격 동결 단행!!

-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 연동초벌용 8Cm ◆ 초벌용위에 연잎을 붙인 상태 ◆ 연동완성품

◆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전화:(02)467-1513 H:(016)552-9360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 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용내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연한 20년간 오가피를 키운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54-3733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광수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중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치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不老 仙藥業也 (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학박사)